



보도자료

- ▶ 2007.6. 배포
- ▶ 총 3 쪽

▶ 보험급여국 재활사업팀장 윤인자

TEL. (02) 2670-0419

FAX (02) 2670-0422

E-MAIL : yij0615@welco.or.kr

'산재보험 재활사업 강화'

- 2007.7.1부터 기존 1팀을 1국·2팀으로 전면 개편하고 재활상담사 32명 추가 확충
 - 1팀(9명) → 1국·2팀(16명)(직업재활팀 신설)
 - 재활상담사 : 147명 → 179명(32명 확충)
- 직장복귀지원·직업훈련 및 창업지원 등 직업재활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되어 산재근로자 직업복귀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전망

○ 근로복지공단(이사장 김원배)은 산재근로자의 원활한 직업 및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7월 부터 재활사업국을 신설하고 재활상담사 32명을 증원하는 등 산재보험 재활사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

○ 근로복지공단은 이번에 신설되는 재활사업국 내에 직업재활팀을 설

치하여 훈련기관 평가시스템 운영·직업평가도구 활용 및 공공 취업
알선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직업재활 분야를 전문적으로 추진함으
로써, 직업재활의 실효성 제고로 산재근로자 직업복귀는 더욱더 촉진
될 것으로 보고 있다.

- 또한 재활상담사 32명을 증원함으로써, 상담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산
재근로자 개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산재근로자 욕구 충족
및 고객만족도 개선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공단은 분석했다.

- 산재보험 재활사업은 예방, 요양·보상과 함께 산재보험의 3대축을
형성하고 있지만, 그동안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촉진의 중요성에도 불
구하고 1개팀(재활사업팀, 9명)과 147명의 재활상담사로 매년 8만 9
천여명의 산재근로자와 3만 9천여명의 산재장해인에 대해 상담 및
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관련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을
받아 왔다.

- 따라서, 이번 재활사업 인프라 확충은 산재보험내에서 재활의 영역
을 확고히 하고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
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에 대해 그 의미를 들 수 있
다.

- 정부는 2001년 『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 계획('01~'05)』 마련을 통
해 산재보험에서 재활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27개 단위사업을 수행함
으로써 ,

산재보험이 현금위주의 보상체제로 운영되어 산재근로자 직업 및 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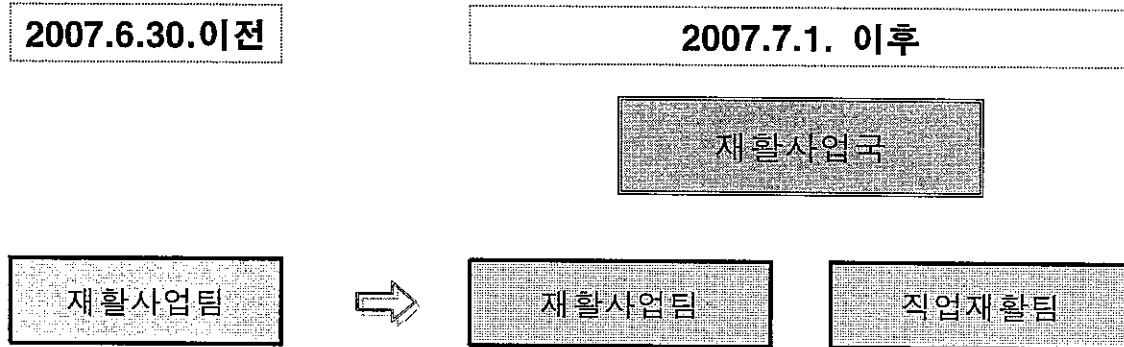
회복귀를 외면한다는 지적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며 산재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보완하는 토대를 마련했다.

- 공단은 『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('06~'08)』을 통해 재활사업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를 더욱더 촉진코자 계획하고 있으며,
 - 그 결과 산재장해인 직업복귀율이 '05년 42.3%에서 '06년 45.5%로 7.6%가 상승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.
- 한편 근로복지공단 김원배 이사장은 “산재근로자 직업복귀율이 60% 이상 되도록 지속적으로 재활사업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”이라며 “산재보험 내에서 재활사업이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전달체계를 더욱더 효율화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※첨부 : 조직개편 및 인력확충 내용

[첨부 : 조직개편 및 인력확충]

□ 조직개편 내용



□ 인력확충

(단위 : 명)

구분	계	일반직	재활상담직			비고
			소계	본부	소속기관	
'07.6.30.이전	153	6	147	3	144	
'07.7.1.이후	191	12	179	4	175	
증원	38	6	32	1	31	